

2050년 -2012년으로부터 38년 후

학교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온 형우는 제일 먼저 텔레비전을 켰다. 그 때 전화벨이 울렸다.

“오늘 늦게 집에 돌아갈 것 같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내일 사용할 물을 가져오렴.”  
엄마의 전화였다. 형우네 집은 물이 끊긴지 오래다.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도 꼭지도 없다. 세수에서부터 양치질, 설거지, 목욕 등은 모두 집집마다 배급되어지는 정해진 양의 물로 해결해야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목욕하기엔 물이 너무 부족해서 목욕탕을 간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슬프게도 목욕탕은 이미 한국에서 모두 사라졌다. 형우는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난 후 이불 속에서 몽그적거리며 텔레비전을 보다 내일 사용할 물이 없다는 걸 깨닫고 급하게 나갈 채비를 했다. 형우는 짐수레를 끌고 동사무소로 향했다. 이 짐수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 형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국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한 사람당 50L의 물만 살 수 있게 하였다. (한 사람당 50L의 물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학생들을 위해 대답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에는 하루 한 사람당 평균 365L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형우의 가족은 할머니, 아빠, 엄마, 형우 총 4명이므로 총 200L의 물이 주어졌다. 200L의 물을 동사무소에서 사고 집으로 옮기려면 이 정도 큰 수레가 필요하다. 왜 형우네 집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물론 집에는 자동차가 있다. 형우가 사는 시대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형우네 자동차는 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다. 하지만 전기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기 때문에 자동차는 몇 년 째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틀어박혀있는 신세였다. 형우가 도착했을 때 동사무소는 물을 가지러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형우는 길게 뻗은 줄 맨 뒤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잔뜩 몸을 움츠렸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물을 사기 위해 기다려야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엄마나 이대로 보이는 아줌마들의 대화가 바람을 따라 들려왔다.

“우리가 어렸을 땐 이럴 줄 상상도 못했는데...”

분홍색깔 조끼를 입은 아줌마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매일 동사무소에 와서 물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지!”

옆에 있는 안경 쓴 아줌마가 혀를 찼다.

“그리고 물이 너무 부족해. 이걸로 어떻게 목욕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는 지. 근데 배급되는 물이 더 줄어든다고 하던 데 사실이야?”

머리가 꼬불거리는 아줌마가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다.

“우리가 아주 비싼 가격으로 물을 사고, 또 힘들게 가지러다니는 데 이 가격에서 양을 더 줄인다고?”

분홍조끼 아줌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신경질을 냈다. 그러자 안경 쓴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물을 아꼈으면 지금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옛날엔 아주 많은 것처럼 느껴지던 물이 이젠 없어서 허덕이게 되었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줌마들은 모두 한숨을 쉬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할 뿐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형우는 수레에 물을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진맥진이 되버린 형우는 다시 소파에 누워서 한참을 텔레비전에 빠져있었다. 마침 엄마가 집에 왔다.

“이형우!”

오자마자 엄마는 고함을 질렀다. 형우는 그 순간 아차 했다. 혼자 집에 있었지만 모든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는 모두 꼽혀있었다. 심지어 전기히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뱅뱅 돌고 있었다. 형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모든 방에 불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았다. 마지막 전기히터 플러그를 뽑으려고 하는 순간 집 현관문에 걸린 ‘전기에너지 초과 감지등’에서 빨간 불빛이 번쩍거리며 집에 있는 모든 불이 꺼져버렸다. 분노가 폭발한 엄마가 또다시 고함을 질렀다.

“이형우!”

감지등이 울리면 집에 있는 모든 전기 에너지 사용이 중지된다. 형우의 엄마가 이 기계를 설치한 이유는 전기사용료가 2012년에 비해 10배 이상 경충 뛰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식사값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게 된 것이다. 이 기계에는 하루동안 사용할 전기에너지를 미리 기록하게끔 되어있는 데 오늘 사용량은 형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모두 바닥이 난 것이다. 냉장고나 전기밥솥 등 음식보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는 이상이 없지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핸드폰 충전기 심지어 불을 키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집안이 어두컴컴해지자 엄마가 촛불을 켜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형우의 아빠와 할머니가 집에 왔다.

“예구머니나, 또 형우가 전기를 다 써버렸구먼. 그치 형우야?”

할머니의 물음에 형우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이형우! 내가 전기를 아껴쓰라고 했을 텐데.”

아빠가 형우를 나무랬다. 옆에서 화를 꺾 참고 있던 엄마가 형우를 방으로 불렀다. 엄마가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형우도 엄마 옆에 앉았다. 풀이 죽은 형우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지난 번에 무엇에 대해 이야기 했지?”

“지구온난화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형우가 들릴 듯 말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처럼 에너지나 물 그리고 물건들을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은 대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그래. 아주 잘 알고 있는 데 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니. 과거에

사람들이 머릿 속에 있던, 지구를 위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지금처럼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았을거야. 지금 너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너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가 커서도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말거야.”

형우가 엄마를 쳐다보지 못하고 보일 듯 말듯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도 어렸을 때는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단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자신들이 지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지금이 돼서야 알게 되었지. 하지만 지구를 변화시키는 힘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단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각각 모두의 힘이 필요해.”

아빠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의 손에는 지구본이 들려있었다.

“형우야. 이걸 보렴.”

형우가 고개를 들고 지구본을 쳐다보았다. 지구본에 그려진 대륙과 바다는 움직이고 있었다. 녹색으로 색칠된 대륙의 면적이 서서히 작아지며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또 대륙의 면적이 작아지자 파란색으로 색칠된 바다의 면적이 늘어났다. 형우는 신기한 지구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초록색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바다야. 그리고 갈색으로 색칠된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으로 된 곳들이지.”

아빠가 지구본을 세 번 돌리자 움직이던 지구본의 그림이 정지했다.

“이게 지구의 현재 2050년의 모습이고…”

다시 지구본을 세 번 돌렸다.

“이게 과거 2012년도 지구의 모습이란다.”

형우가 지구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현재 지구는 2012년에 비해 초록색 대륙의 상당 부분이 사막으로 변해있고 대륙의 면적 또한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겨있었다.

“대륙의 면적이 줄었지?”

아빠가 형우에게 물었다.

“네. 대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예요?”

“그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 하지만 줄어들고 있어. 과거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섬들은 지금 모두 바닷속에 잠겨버렸지.”

“왜 바닷물이 많아졌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있단다. 아주 많은 빙하의 양이 녹아버렸어.”

“근데 아빠, 물이 많아졌으니 좋은 게 아니예요?”

형우가 아빠에게 물었다. 형우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짜지? 그건 바닷물 속에 염분이 있어서 그렇단다. 사람은 염분을 많이 먹으면 더 목이 마르게 된단다. 결국엔 갈증을 채울 수 없어서 …”

“…죽나요?”

형우가 작은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하지만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역설적이지만 형우, 너도 알다시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킨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형우가 머리를 긁적였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을 고치는 거야. 바로 절약하는 거지. 참 쉬운 방법인데 왜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렇지 형우야?”

아빠가 형우를 쳐다보았다. 형우가 뜨끔해서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다.

“저도 조심할게요. 아빠.”

“그래. 지구를 위해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꼭 약속을 지키거라. 지구의 변화는 우리의 몫이야.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형우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꼭 쥐었다.

“2012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12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불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고 올래요.”

용감한 표정을 하고 있는 형우를 보며 엄마와 아빠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아빠가 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이만 자자. 전등이 이미 모두 꺼져버렸으니 끝 필요는 없구나. 잘자거라.”

엄마와 아빠가 촛불을 들고 형우의 방을 나갔다. 침대에 누운 형우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리 속에서 동사무소에서 봤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떠올랐다. 지금 자신이 겪는 불편이 과거에서 온 사실에 약간의 화도 났다. 2012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복잡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방문이 스스로 열렸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다.”

“할머니 주무시지 않고...”

“너도 자지 않고 있구나. 고민이 많은 게냐?”

어두컴컴한 방에 달빛이 스며들어와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두꺼운 앨범이 들려있었다.

“이게 뭐예요?”

“옛날 앨범이다. 이게 너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 꺼다. 많은 걸 바꾸고 오거라.”

할머니가 방을 나가려다가 다시 형우를 쳐다보았다.

“아, 돌아 올때 앨범을 거꾸로 보면 돼.”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형우에게 앨범을 건네준 뒤 방을 나갔다. 형우는 앨범을 펼쳐보았다. 한 장씩 건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쓰러져 있는 사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지진이 나서 부서진 건물에 깔려있는 사람...

“어? 한국이잖아?”

사진 속에 있는 농민들은 몇 일동안 오지 않는 비로 벼가 바싹 말라버려 울상을 짓고 있었다. 또 태풍 때문에 다 익지 못한 사과가 나무에서 모두 떨어져버린 사진도 보였다. 형우는 엄마가 말했던 걸 생각해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단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방글라데시에서는 며칠째 내린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지. 또 곳곳에서 엘니뇨현상<sup>1)</sup>이 일어나고 있어.’

형우는 앨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또 미래에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또다른 가해자일지도 몰랐다. 앨범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잠이 들었다.

## 2012년

아침. 집 밖에 소복이 눈이 쌓이고 있었다. 눈이 시끄럽게 창 밖에 부딪혀도 침대 위에 새근새근 잠이 든 형우는 꿈쩍도 않았다.

“형우야. 빨리 일어나거라. 지각하겠다.”

자명종보다 요란스러운 엄마의 부름에 형우는 눈을 떴다. 눈을 비비며 방을 나오는데 무엇인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어제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물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엄마. 어제 가져온 물통 어디다 치웠어요?”

“물통이라니?”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듯 쳐다봤다.

“세수할려고요.”

형우는 평소처럼 물통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세숫대야에 비우고 세수를 하려고 했다.

“물통으로 세수를 한다고?”

“에이, 엄마도 참. 장난하지 마세요. 저 늦었어요. 빨리 물통주세요.”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형우의 볼을 꼬집었다.

“형우야. 지금 잠이 덜 깬 모양이구나. 세수를 하려면 화장실에 가야지.”

---

1) 엘니뇨는 중부 및 동부 적도대의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생기는 이상 기후 현상이다. ‘엘니뇨’라는 단어는 에스파냐어로 ‘남자 아이’ 또는 ‘아기 예수’를 의미하는데, 크리스마스 즈음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남미 북동부 지역에는 가뭄이 들고, 에콰도르의 페루 북부에는 폭우가 내린다.

엄마가 화장실 문을 열자 없었던 수도꼭지가 세면대에 붙어있는 게 보였다.

“어? 왜 수도꼭지가 있지?”

엄마는 형우에게 보란듯이 세면대에 달린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쿵쿵 쿵 쏟아졌다. 형우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엄마! 뭐하는 거예요. 아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형우야. 오늘따라 왜이러니? 빨리 씻고 학교가!”

급기야 엄마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형우는 세면대에 조금 물을 받은 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다. 그리고 발도 씻었다. 다시 깨끗한 물을 조금 받은 뒤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행궜다. 물은 쿵쿵 쿵 쏟아졌다. 형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집엔 수도관이 없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우의 집 뿐만 아니라 모든 집이 그랬다. 하지만 지금 형우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인가 변했음에 틀림 없었다.

형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집 안이 뜨거웠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더워요?”

“추워서 보일러를 틀었단다.”

엄마는 반팔을 입고 있었다.

“엄마는 이 정도 추위에는 보일러를 튼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항상 얇은 옷을 여러 개 겹겹이 입으라고 하셨으면서...”

“형우야. 학교까지 태워다 줄까?”

아빠가 넥타이를 매며 형우에게 말했다.

“전기료가 비싸서 자동차를 사용안 한지 몇 년이 되었잖아요. 학교간다고 자동차로 데려다준다니요.”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는 전기로 움직이지 않고 기름으로 움직인단다.”

아빠는 껄껄 웃었다. 형우는 그 순간 자신이 어제의 자신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또 엄마도 아빠도 달랐다.

“엄마.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이에요?”

“2012년 12월 10일이란다.”

형우는 얼굴을 부여잡았다. 진짜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수도꼭지에서 쿵쿵 쏟아지는 물, 현관문에 달려있지 않은 전기에너지 초과 감지등, 이 모든 것이 과거를 말하고 있었다. 형우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자신 혼자만으로는 미래의 참혹한 모습을 바꿀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런데 어린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형우는 학교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주겠다는 아빠의 호의에 고개를 젓고는 15분 동안 학교까지 걸어갔다. 자신이 살던 미래의 학교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랐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다.



“형우야 안녕!”

승엽이가 복도 맞은 편에서 뛰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화장지가 가득했다. 형우는 깜짝 놀랐다. 형우가 미래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화장지를 7칸 이상 사용하면 교장실로 가서 환경교육을 받고 와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창피한 일이었다. 그런데 승엽이의 손은 미라처럼 많은 양의 화장지로 감겨있었다.

“승엽아. 손에 무슨 짓을 한거야?”

형우가 입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승엽이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비비 꼬고 있었다.

“왜 그렇게 놀래? 화장실가는 중이야!”

순간 형우는 자신이 과거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형우가 바뀌어야 했다. 형우는 친구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도와줄 준비가 돼있었다. 승엽이의 손에서 화장지를 뺏고는 적당한 양을 승엽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야?”

“이 정도면 충분해! 빨리 화장실 다녀오는 게 좋을걸? 선생님 곧 들어오셔.”

승엽이는 형우의 행동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모으고는 다시 화장실로 뛰어갔다. 형우가 교실에 들어가니 정말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다. 열려진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뽀뽀 불어오는 데 교실 천장에 달린 히터는 뜨거운 바람을 만들기 위해 열을 내고 있었다. 그러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했다. 형우는 재빨리 교실로 들어가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모두 닫고 히터를 적정온도로 맞추었다. 근데 이 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나무 책상 위는 온갖 낙서로 더러워져 있었다. 낙서는 다음 이 책상을 쓰게 될 동생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책상의 수명이 짧아지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책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하고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형우는 자못 비장한 표정을 하고 지우개를 들었다. 그리고 낙서를 모두 박박 지웠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형우의 행동에 달갑지 않아하면서도 몇몇 친구들이 형우를 도와 책상 위 낙서들을 지웠다. 형우는 그제야 안심이 돼서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청소시간이 되었다. 책상을 모두 뒤로 밀고 깨끗하게 바닥을 쓸고 있는 데 태현이가 책상에서 굴러 떨어진 연필이나 지우개를 모두 쓰레기통으로 비워 넣고 있었다. 형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태현아!”

태현이가 형우를 쳐다보았다. 형우는 태현이가 버리려고 하는 쓰레받기를 재빨리 뺏었다. 쓰레받기에는 아이들이 모르고 떨어뜨린 물건들이 있었다.

“이걸 버리면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어야지!”

“이 주인들을 언제 다 찾아. 그리고 더럽다고 가져가지도 않을 걸?”

형우는 쓰레받기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집은 뒤 분실물통에 넣었다. 하지만 분실물통에는 이미 주인 모를 물건들이 한가득이었다. 형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형우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교탁위로 올라가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애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분실물통에 필기구들이 한가득인 데 왜 찾아가지

않는거야? 잃어버리면 다시 새 필기구를 사야 되고. 이건 단순히 연필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이걸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 그리고 에너지를 쓰게 되고 지구에 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이건 낭비야! 또 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구.”

청소하던 반 친구들이 형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내 물건을 쓰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야?”

덩치가 큰 기범이가 큰 목소리로 형우에게 말했다. 하지만 형우는 기죽지 않았다.

“이건 미래를 위해 지켜야할 도덕이고 의무야. 너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구를 지켜낼 수 없어.”

“뭐라고?”

기범이가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거대한 몸뚱이를 형우에게 들이댔다. 그러자 승엽이와 태현이가 형우옆에 붙었다.

“그래. 형우 말이 틀린 게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기적이야. 피해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온다고.”

태현이가 말했다.

“맞아. 너희들 모두 자기 물건들을 찾아가. 또 책상 위에는 낙서하지 말자.”

승엽이가 말했다. 기범이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형우는 승엽이네 집에서 태현이와 함께 놀기로 했다. 승엽이네 집에 도착하니 승엽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개수대에서는 물이 쿵쿵 쏟아지고 있었다. 형우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승엽이 엄마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형우하고 태현이 왔구나. 배고프지? 라면 끓여먹거라.”

승엽이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고 방으로 가져갔다. 날카로운 형우의 눈이 나무젓가락을 향했다.

“왜 나무젓가락을 가져왔어?”

형우가 승엽을 쳐다보며 물었다.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어야 더 맛있거든!”

승엽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쇠젓가락이 있는 데 굳이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 나무젓가락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키는 나무들이 이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베어져 나가고 있어.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고!”

“형우는 꼭 선생님인 척 하는 것 같아. 에이, 다시 가져가기 귀찮다. 그냥 먹자.”

승엽이가 뽀로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돼.”

옆에 앉아있던 태현이가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쇠젓가락을 가지고 돌아왔다.

“내가 졌다. 졌어.”



승엽이가 기막힌듯 웃었다. 형우와 태현이도 마주보며 신나게 웃어댔다. 형우와 친구들이 라면을 맛있게 다 먹고나니 어느새 밖엔 어둠이 깔려있었다. 형우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누웠다. 그리고 버릇처럼 텔레비전을 켰다. 그리고 번호를 꺾꺾 눌러댔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형우야.”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어? 할머니, 집에 계신 줄 몰랐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근데 형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찌지?”

할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우는 리모콘을 소파 위에 올려놨다.

“아차, 깜빡했어요. 리모콘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었네요.”

형우가 머쓱해져서 머리를 긁었다.

“아, 할머니가 준 앨범이 효력이 있네요.”

“앨범? 무슨 앨범말이나?”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분명 할머니가 앨범을 줬는데…”

일을 마치고 온 엄마와 아빠가 장을 본 듯 손에 바리바리 짐을 싸고 들어왔다. 엄마의 손에는 맛있는 과일과 음식들이 한가득했다. 그런데 짐들은 까만 비닐봉지에 담겨있었다. 형우가 보란듯이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아차차. 장바구니가 있다는 걸 깜빡했구나. 다음부터는 잘 보이는 곳에 장바구니를 두어야겠다. 그래, 형우야 미안하구나!”

엄마는 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우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보일러를 켜는 대신 얇은 옷 여러개 껴입고 거실에 삼삼오오 모여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암.”

형우가 입이 찢어질 듯 하품을 했다.

“입에 주먹도 넣을 수 있겠구나! 피곤한가보구나. 어서 잠을 자거라.”

아빠가 말했다. 옆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깔깔깔 웃었다.

“네. 저 먼저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형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검은색 앨범이 있었다. 형우는 고민에 빠졌다. 미래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의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에 잠긴 형우가 앨범을 뒤척였다. 놀랍게도 앨범 속 사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형우의 머릿 속으로 생각 하나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래! 이제 앨범이 웃는 사진으로 가득할 지 울고 있는 사진으로 가득 채워질지는 나의 몫,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몫이야!”

형우는 검은 앨범을 덮었다.